

표준강국 이끈 표준리더들을 만나다

표준화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기술력 향상과 국제표준화 주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는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유공자와 유공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정부포상 행사가 진행되었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표준화 활동을 펼쳐온 주요 수상자와 수상단체를 만나본다.



[동탑산업훈장] 조수현 S&T중공업 전무이사

사내표준 접목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 기여

조수현 전무이사는 TA-50 초음속 항공기용 급탄장치와 한국형 기동헬기(KUH 수리온)에 장착하는 기어박스 및 구동장치의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에서부터 업무지침, 생산공정·검사·시험표준 등 567종의 표준을 제정·보완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회사의 품질경쟁력과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제조 및 품질보증 관련 표준화 활동을 통해 해외 매출도 끌어올렸다. S&T중공업 각 사업군에 최적화된 800여 종의 표준문서(프로세스, 시험표준 등) 개발을 통해 레도차량용 정유압 조향장치, 상용차량(대형트럭 및 버스)용 차축, 기어 가공기 및 산업차량(지게차 등)의 변속기용 부품 수출을 이뤄냈으며, 최근 3년간 총 3,537억 원의 해외 매출을 달성했다. 조수현 전무는 "세계 표준의 날에 이렇게 큰 상을 받아 영광으로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근정포장] 이상봉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표준교육 강화와 표준 인식 확산에 앞장

이상봉 교수는 대한민국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대회를 제안하고, 창설 후 제회 대회부터 지난 해 7회 대회까지 운영위원장, 과제개발위원장, 심사위원장 등 대회의 조직, 홍보와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회가 조기에 전국적인 규모의 올림피아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1997년 이래 중·고교 교육과정 개정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표준 단위 신설을 주도해 청소년의 표준화 인식 제고와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 <우리 생활 속 표준> 개발과 표준 시범학교 운영, 중·고교 교사 표준 연수, 대학 표준화 강좌 등 표준 교육 정책 개발과 확산에도 공헌해 왔다.

이상봉 교수는 "표준 선점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표준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표준교육에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포장] 이학주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나노측정 분야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수행

이학주 책임연구원은 나노측정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특히 MEMS(미세전자기계시스템) 박막 물성측정 관련 국제표준 제정 활동과 2006년 이래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반도체소자 분야(IEC TC47), MEMS 분야(SC47F) 기술위원, 프로젝트 리더 등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전문 기술자식을 바탕으로 반도체 분야의 국내 전문위원과 국제회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물성 측정과 평가방법 로드맵 작성, MEMS 분야 국내 표준화 발전 및 국제표준 대응전략 수립 등 적극적인 표준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학주 책임연구원은 "10여 년간 나노측정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결에서 도와준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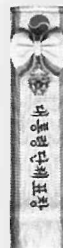
[대통령표창-단체부문] 전자부품연구원

무선충전 관련 표준 활동으로 산업 활성화

전자부품연구원은 무선충전제어 인밴드(in-band) 자기장 통신기술(ISO/IEC 17921)과 홈 네트워크 공통 통신 프로토콜(IEC 62295) 등 총 14건의 국제표준 제정을 통해 무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무선충전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IEC TC 47(반도체소자) 분야의 국제간사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신규 워킹그룹 설립을 주도하여 의장을 맡는 등 최근 3년간 무선충전, 홈네트워킹 등 주요 기술 분야에서 총 22건의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수입과 프로젝트 리더를 수행하고 있다.

김경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은 "오늘의 영광은 어려운 여건 아래 연구에 힘써온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표창-단체부문] 에이치시티

나노물질 발생과 모니터링 방법 표준 제정

에이치시티는 제조공정에 핵심인 측정표준과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출입독성 챔버 내에서의 나노물질 발생과 모니터링 방법(ISO 10801/ ISO 10808)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및 표준화 활용으로 국가기술력 향상과 선진국의 나노물질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정부기관에 국제표준을 활용한 흡입시험장비 수출로 우리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수찬 에이치시티 대표는 "회사의 사업 발전만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